주가	환율	금리
-6.07	+3.50	-0.04
1,279.85 (코스피지수)	946.80원 (원/달러)	4.85%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75.98	(-9.85)
다우(4일)	11,228.02	(+77.80)
나스닥(4일)	2,190.43	(+18.34)
닛케이	15,523.94	(-114.56)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5.16엔	(+0.22)
유로 달러 환율	1.2824달러	(+0.20)
3년만기 회사채	5.14%	(-0.03)
콜금리	4.21%	(+0.01)

영농자재 부가세 환급 10일까지 접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농업인이 올 2·4분기 중 영농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 1·4분기 중 신청누락분도 포함된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PE필름·농업용파이프·농업용포장상자·농업용PP포대·과일봉지·차광막·농업용부직포·농업용배지 등이다. 또 올 2·4분기부터는 축산업용톱밥·이앙기용 멀칭종이·동력파종기·농업용양수기·볍씨발아기·동력배토기·동력예취기 7개 품목이 추가로 환급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농협은 2003년 63억원, 2004년 74억원, 2005년80억원을 농업인에게 환급했으며, 올 1·4분기에는 18억원의 부가세를 농협이 환급신청을 대행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기 자금난 해소 공제기금 가입 캠페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는 최근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공제기금 이용업체 간담회를 갖고 하남산업단지공단 인근에서 공제기금 가입촉진캠페인을 실시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공제기금 가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연쇄도산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대기업 협력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자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주상권 분석 11

문흥지구 상권은 행정구역상 북구 문흥동과 오치동에 속하며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용봉IC까지 동·서로 길게 자리잡고 있다. 전체 상권의 면적은 54만4천여평으로 '문흥지구', '오치사거리', '오치주공' 등 3개 세부상권으로 나뉜다.

용봉·일곡상권에 밀려 갈수록 '쇠락'

한때주거형 상권 부상…홈플러스 개점이후 위축

이달 중순 빅마트 오픈… 상권 재부활 여부 관심

문흥지구

조성시기별로는 오치사거리 상권이 가장 먼저 형성됐으며 이후 오치주공, 문흥지구 순으로 조성됐다.

세부상권별 특징은 조성시기와 배후지 주거형태에 따라 결정돼 오치사거리는 북구청에서 패밀리랜드를 잇는 북구의 주요 간선도로답게 전형적인 도로변 상권으로 주거지보다는 도로를 따라 상권이 형성돼 있다.

오치주공은 상권의 명칭에서 알수있듯이 주공아파트를 배후지로 삼고 인근에 북부경찰서가 있어 주거와 관공서가 복합된 상권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흥지구 상권의 핵심은 단연 대단위 택지지구인 문흥지구다. 문흥지구는 지난 92년 대단위 택지개발에 의해 신흥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형성됐다. 특히 94년과 95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상권 형성이 이뤄져 현재는 문흥1동에 7천여세대 2만5천여명, 문흥2동에 8천여세대 2만6천여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34만9천여평에 5만1천명의 배후지 인구를 바탕으로 문흥지구 상권은 90년대 중·후반에 북구의 최대상권으로 부흥을 누렸고 2000년대 초까지도 대표적인 주거형 상권으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97년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는 등 배후지 주거인구 증가의 한계를 보이면서 상권의 확장세는 멈췄고 2002년 10월 인근에 삼성 홈플러스 개점으로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인문계 고교없어 인구 유출

문흥지구 상권 위축 현상은 일곡지구와 용봉택지지구 조성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일곡지구와 용봉지구가 문흥지구 위 아래에 생기면서 고교학군 때문에 일곡지구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음식점들은 용봉지구 먹자골목에 손님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문흥지구 사람들이 일곡지구로 빠져나가는 원인은 지구내에 인문계 고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문흥지구내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가 있지만 고교는 실업계인 자연과학고 밖에 없다. 이로인해 지구 조성초기 주류를 이뤘던 30대 거주자들이 10여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고교생이 됐지만 마땅한 고교가 없어 일곡지구를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흥지구**=동광주IC 입구부터 북부소방서 앞 사거리까지다. 샛터코아 사거리~문화신협 사거리, 문산초교와 금호아파트 건너편, 문정초교 양편, 샛터코아 사거리~북부소방서 사거리 등 4곳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이가운데 최대 상권은 샛터코아 사거리~문화신협 사거리로 문흥지구 전체 상권의 핵심이다. 100여m의 달하는 6차선 도로 양편에 2개 블럭이 상업지구로 지정돼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대로변에는 중심 상권답게 안경점, 의류점, 약국, 이동전화 대리점, 은행, 제과점 등이 영업중이고 이면도로에는 음식점, 사우나, 호프집 등이 자리잡고 있다.

중심상권내 빈점포 임대도 뜸해

전성기때보다는 못하지만 대로변 상가의 경우 1층 기준으로 평당 임대가가 600만원에서 1천100만원 수준이다. 횡단보도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주변 상가는 1천만원을 넘어 광주지역 대규모 택지지구내 중심상권 수준이지만 나머지 가게들은 임대가가 타 지역에 비해 낮다.

더욱이 이곳에서 1층을 임대로 사용하던 삼성디지털프라자가 1개월전 가게를 내놓고 나가는 등 중심상권내에서도 빈 점포가 있어 상권의 위축세를 짐작할 수 있다.

Y부동산 대표 정모씨는 "평당 임대가가 전성기때에 비해 200만원 가량 빠진 것 같다"며 "중심상권의 경우 성인PC방과 학원 등이 빈 점포에 들어오려고는 하지만 임대가와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바로 계약체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흥지구 중심상권은 이달 중순께 개점예정인 빅마트의 영향으로 어느정도 활성화 될지가 관심거리다.

이밖에 문정초교 양편으로는 학원과 독서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문산초교와 금호아파트 건너편 다세대 주택지에는 카센터와 소매유통업 사무실 등이 자리잡고 있지만 길가 1층의 평당 임대가가 200만원 수준으로 낮다. 샛터코아 사거리~북부소방서 사거리에는 길 양편에 음식점, 생활용품 판매점 등이 성업중이다.

소규모 음식점·단지내 상가는 성업

◇**오치사거리**=일곡지구와 문흥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도로변을 따라 상권이 형성돼 있다. 오치 굴다리에서 오치사거리가 이곳의 중심으로 의류점, 편의점, 은행, 병원 등이 유동인구 영향으로 비교적 선방하고 있고 공공기관인 한전과 북부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음식점들의 영업도 괜찮은 편이다.

◇**오치주공**=북부경찰서에서 오치사거리 사이로 일곡, 문흥, 용봉지구에 소비층을 빼앗겨 전반적으로 고전하는 업소가 많다. 하지만 주공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이 많은 고밀도 주거형태로 인해 단지내 상가는 활성화돼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다음 상권분석은 하남지구입니다